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의 관계에서 창의적 과정 참여의 매개효과

김경민*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과정 참여 및 창의적 인성의 일반적 경향과 관련성을 알아보고,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창의적 과정 참여를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406명을 임의표집하였고,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과정 참여, 창의적 인성 척도를 사용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t*-검증,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과정 참여, 창의적 인성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과정 참여, 창의적 인성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의적 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창의적 과정 참여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 결과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창의성에 대한 동기적 요소인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적 요소인 창의적 과정 참여 그리고 창의성의 정면적 측면인 창의적 인성의 메커니즘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과정 참여, 창의적 인성, 대학생 창의성 발달 메커니즘

* 고려대학교 BK21 지속가능생활시스템융합교육연구단 연구교수, rudals0414@korea.ac.kr

I. 서론

창의성은 미래사회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 손꼽힌다. 대학생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력으로, 대학생들로 하여금 독창적인 사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탐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확보의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현 기회 증진이라는 개인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의성 관련 연구들은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어떻게 이들의 창의성을 촉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Daly, Mosyjowski & Seifert, 2019). 또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창의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믿음은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많은 학자들은 교육적 환경을 지적한다(최민지, 2020). 이는 향후 창의성 연구 및 교육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창의성이란 새롭고 유용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이러한 창의성은 단순한 지능만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닌 정의적인 특성을 포함하는 잠재능력이며, 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개발가능한 것이라는 데에 동의한다(Runco, 2014). 창의성이 교육을 통하여 개발 가능한 영역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기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많은데(정진영, 2012), 동기는 개인이 타고난 능력이나 환경적 요인에 비해 통제가능하며 스스로 노력하여 개발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관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정의적 특성이 더 강조된 창의적 인성(하주현, 2000)으로 보고, 이를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창의적 태도 및 행동 특성으로 어떤 상황에서 연관된 모든 조건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보이는 것으로서 호기심, 자기확신, 상상, 안내심과 집착, 유머감, 독립성, 모험심, 개방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Amabile(1993)은 동기와 창의성 발현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적으로 동기화된 상태는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Csikzentmihalyi(1996)는 창의성이란 정의적 특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창의성의 성격 및 동기적 특성이 개인의 창의성 발달

을 잘 설명한다고 하였다. 기존의 동기와 창의성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내적동기가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진행되어(김지일, 허남순, 이지혜, 2011; 정미선, 2021), 구체적으로 어떠한 동기 관련 요인이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동기 관련 요인이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관련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가 사회학습 이론을 근거로 제시한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과제 및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주관적 확신으로 정의된다. 자기효능감 개념을 창의성과 접목시킨 창의적 자기효능감(creative self-efficacy)은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본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Tierney & Farmer, 2002).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의적 잠재력을 발견하게 해주고(Kaufman & Beghetto, 2009) 창의성을 표현하고자하는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Beghetto, 2006) 중요하다. 이를 통해 창의성이 발현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창의적 능력에 대해 자기 스스로 가지는 믿음은 창의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에 중요한 동기적 요인이 되며(Carmeili & Schaubroeck, 2007; Farmer, Tierney & Kung-Mcintyre, 2003),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의력을 요구하는 과제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았다(정미선, 2020).

지금까지 수행된 창의성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자신에 대한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수행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ase, Hoff, Hanel & Innes-Ker, 2018). 또한 자신의 창의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은 창의성 발현에 동기적 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Farmer, Tierney & Kung-Mcintyre, 2003; Tierney & Farmer, 2011). 우리나라에서도 창의성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진수, 이영만, 2000; 이정규, 2005). 특히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창의적인 과제를 수행할 때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하며(정미선, 2014),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나타난 것(정미선, 2019)은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메커니즘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다양한 연령 및 집단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의 관계를 살

피본 경험적 연구들(김병만, 김정주, 윤정진, 2016; 김지일, 허남순, 이지혜, 2011; 오유미, 문혁준, 2018)은 창의성에 특화된 자기효능감인 창의적 자기효능감 역시 창의적 인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려준다. 이상의 연구는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창의성과 개인적 요인의 관련성을 밝혀주는 중요한 과정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Karwowski, 2011; Puente-Dias & Cavazos-Arroyo 2017). 이들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교육을 통해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창의성 향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기 관련 요인이 창의성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에 있어서 실제 수행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기화된 개인은 특정 행동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때문이다. 창의적 과정 참여란 개인이 창의적 결과를 내려고 시도하는 과정으로, 문제의 발견, 환경 탐색, 데이터 수집, 해결책 생성과 평가 그리고 실행을 의미한다(Basadur, 2004; Basadur, Graen & Green, 1982; Shalley, 1991). 구체적으로 창의적 과정 참여는 문제를 찾아내고 정보를 탐색 및 정리하며 아이디어 및 대안을 발굴하는 일련의 인지적 및 행동적 과정이다(Reiter-Palmon & Illies, 2004). 이러한 과정은 계속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방안을 실행하기에 습관적이거나 자동적인 행동과는 다르다(Shalley & Zhou, 2008). 물론, 모든 창의적 과정 참여 행동들이 창의성 발현으로 이어지는 않지만, 창의성 발현을 위해서는 창의적 과정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Shalley, 1991). 다수의 경험적 연구에서 창의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창의성의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Reiter-Palmon, 2017). 특히 한 개인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단서를 찾으려 하며 기존의 지식과 정보들을 새롭게 연결하려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창의적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Zhang & Bartol, 2010).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창의적 과정 참여는 창의성 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동기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과정 참여 그리고 창의적 인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각각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어 수행되었다.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수행을 하려는 경향이 많고, 문제에 있어서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선호하며(Phelan & Young, 2003), 한 개인이 높은 수준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가지게 되면 창의적 수행을 표현할 기회도 더 많이 가지려 하고(Yu & FrenkelYu, 2013), 자

신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믿음은 창의적 수행에 동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armer, Tierney & Kung-Mcintype, 2003; Tierney & Farmer, 2011). 또한 실제 창의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창의성 발현 및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준구, 2017; Gilson & Shally, 2004; Reiter-Palmon & Illies, 2004).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과정참여 그리고 실제 창의성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자기조절 강점 모델(self-regulation strength model, Baumeister & Vohs, 2003)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본인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창의적인 과제에 더욱 잘 동기화되며, 이는 창의적 수행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경험한 개인은 창의적인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창의적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창의적 인성 수준의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동기적 요인과 실제 수행 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토대로, 창의적 과정 참여를 통해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의 관련성에 대한 메커니즘의 일부를 밝힐 수 있다. 기대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결과 성취에 대한 기대 및 결과물의 매력 정도에 따라 특정 행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 및 노력의 강도가 달라진다(Vroom, 1964). 즉, 자신의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 성취를 위한 행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창의성 발현에도 적용시켜본다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창의적 과정에 많이 참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다. 즉, 한 개인이 자신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기대가 있다면, 창의성 발현과 관련된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며, 이는 창의성 발현과 관련있는 태도를 가지게끔 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Amabile(1983)은 동기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창의적 행동에의 참여 역시 개인의 동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또한 내적 동기는 개인이 특정 행동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Utman, 1997).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자신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아이디어 생성이나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도록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게 될 것이고(Deci & Ryan, 1991; Spreitzer, 1995), 이러한 행동은 위험을 감수하게 해주고 새로운 대안을 발견하거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게 해준다(Amabile et al., 2018). 즉,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의성 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창의적 과정 참여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과정 참여와 창의적 인성의 일반적 경향과 요인들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뒤,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의 관계를 창의적 과정 참여가 매개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는 창의성 발달과 관련있는 요인들의 특성을 알려주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창의성 발현 및 신장을 위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참고).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과정 참여와 창의적 인성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과정 참여와 창의적 인성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과정 참여는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때, 창의적 과정 참여는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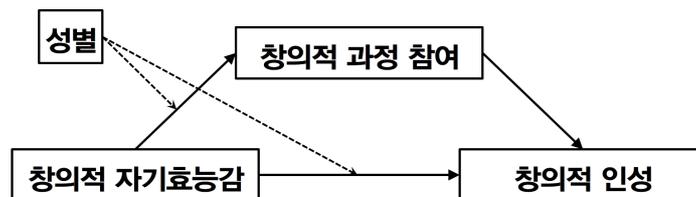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4개 대학교에 재학 및 휴학 중인 남녀 학생 406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406)

변인		<i>n</i>	%
성별	남	152	37.4
	여	254	62.6
학년	1학년	77	19.0
	2학년	94	23.2
	3학년	103	25.4
	4학년	123	30.3
	기타	9	2.2
	전공계열		
전공계열	공학계열	115	28.3
	인문계열	102	25.1
	사회과학계열	92	22.7
	자연과학계열	48	11.8
	의약학계열	26	6.4
	예체능계열	23	5.7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의 관계에서 창의적 과정 참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계수 평가 기준은 Cronbach α 값이 .8 이상일 경우 매우 좋은 것으로, .7 이상

일 경우 좋은 것으로, .6 이상인 경우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George & Mallery, 2019).

1) 창의적 자기효능감

대학생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Karwowski, Lebudu와 Wiśniewska (2012)이 개발한 창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복잡한 문제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가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능점수 범위는 6점에서 30점이다. 이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6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척도들과의 상관을 통해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Karwowski et al., 2012).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8이었다.

2) 창의적 과정 참여

대학생의 창의적 과정 참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Zhang과 Bartl(2010)이 개발한 창의적 과정 참여 척도(Creative Process Engagement; CP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문제발견, 정보 탐색/수집, 아이디어 생성의 3요인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같은 문제에 대해 수많은 대안책들을 생각해 본다.”가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능점수 범위는 11점에서 55점이다. 이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7에서 .81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Zhang & Bartl, 2010).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5였다.

3) 창의적 인성

대학생의 창의적 인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하주현(2000)이 개발한 창의적 인성 검사(Creative Personality Scale; CP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호기심, 상상, 인내/집착, 유머, 자기확신, 독립심, 개방성, 모험심의 8요인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남들이 당연하게 보는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의문을 갖는다.”가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능점수 범위는 30점에서 150점이다. 하주현의 연구(2000)에서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미옥의 연구(2009)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4개 대학교에 재학 및 휴학 중인 남녀 학생 400명을 목표로 임의표집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ter, KSDC)를 활용하여 설문조사 모집공고문, 연구참여설명서(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강조하는 내용 포함), 연구참여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온라인 설문조사지를 만들었다. 둘째, 연구자가 각 대학교의 학생커뮤니티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고, 허가한 4개 대학교를 중심으로 각 학교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설문조사 URL 링크를 올려 학생들이 접속하여 자발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게시하여 2021년 3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설명서를 읽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대학생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0-15분이었다. 넷째, 답례품 지급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핸드폰 번호를 적도록 하여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총 412명의 대학생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회수된 온라인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설문지 406부(98.54%)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의 관계에서 창의적 과정 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연구에 사용한 모든 변인들의 정규성 검증 및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치와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Cronbach α)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과정 참여 그리고 창의적 인성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의 관계에서 창의적 과정 참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Hayes의 SPSS Process Macro(version 3.5.2) model 4를 사용하여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연구변인에서의 성 차를 고려하여, 성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를 사용하는 것은 총효과, 직접효과 그리고 간접효과의 통계치를 추론하는데 있어 표집분포에 대한 가정 등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간편성의 이점이 있다(Hayes, 2017). 이 때 각 경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Bootstrapping 방식으로 재추출한 표본 수를 5,000개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위하여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학생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과정 참여, 창의적 인성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고,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분포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왜도의 절대값이 2 미만, 첨도의 절댓값이 4 미만이어야 한다(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 변인들의 왜도는 $-.51 \sim .03$, 첨도는 $-.69 \sim .58$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모든 변인들의 왜도 및 첨도 값이 기준값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 참고).

또한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과정 참여와 창의적 인성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과정 참여와 창의적 인성 전체점수에서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남학생 ($M=3.45$, $SD=.79$)이 여학생($M=3.26$, $SD=.87$)보다 높았고($t=2.11$, $p<.05$), 창의적 과정 참여 역시 남학생($M=3.71$, $SD=.56$)이 여학생($M=3.54$, $SD=.57$)보다 높았으며($t=2.96$, $p<.01$), 창의적 인성에서도 남학생($M=3.51$, $SD=.46$)이 여학생($M=3.38$, $SD=.51$)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t=2.64$, $p<.01$).

표 2
주요 연구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N=406$)

변인	전체 ($N=406$)		성별에 따른 차이				<i>t</i>	왜도	첨도
			남($n=152$)		여($n=254$)				
	<i>M</i>	<i>SD</i>	<i>M</i>	<i>SD</i>	<i>M</i>	<i>SD</i>			
창의적 자기효능감	3.33	.84	3.45	.79	3.26	.87	2.11*	-.17	-.30
창의적 과정 참여	3.60	.57	3.71	.56	3.54	.57	2.96**	-.10	.48
창의적 인성	3.43	.50	3.51	.46	3.38	.51	2.64**	-.04	.26

* $p<.05$, ** $p<.01$.

2. 대학생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과정 참여, 창의적 인성의 관련성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과정 참여와 창의적 인성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대학생의 창의적 인성은 창의적 자기효능감($r=.71$, $p<.001$) 및 창의적 과정 참여($r=.67$, $p<.001$)와 모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의적 인성의 모든 하위요인들과도 창의적 자기효능감 및 창의적 과정 참여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표 3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과정 참여, 창의적 인성간의 상관 (N=406)

변인	창의적 과정 참여	창의적 인성
창의적 자기효능감	.62***	.71***
창의적 과정 참여	-	.67***

*** $p < .001$.

이러한 상관 분석 결과가 성별에 따라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표 4 참고),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창의적 인성은 창의적 자기효능감(남학생 = .75, $p < .001$; 여학생 = .68, $p < .001$) 및 창의적 과정 참여(남학생 = .73, $p < .001$; 여학생 = .63, $p < .001$)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상관 계수 패턴에 있어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별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과정 참여, 창의적 인성간의 상관 (N=406)

변인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과정 참여	창의적 인성
창의적 자기효능감	-	.68***	.75***
창의적 과정 참여	.57***	-	.73***
창의적 인성	.68***	.63***	-

*** $p < .001$.

주. 오른쪽 상단부는 남학생($n=152$)을 대상으로 한 상관분석 결과이며, 왼쪽 하단부는 여학생($n=254$)을 대상으로 한 상관분석 결과임.

3. 대학생의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과정 참여가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창의적 과정 참여를 매개로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그림 2 참고). 이 때, 본 연구의 앞선 연구결과에서 연구변인들간 성별 차이가 나타난 것을 고려하여 성별을 통제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성별을 통제한 뒤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였고($\beta=.71, p<.001$), 이는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의적 인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도 성별을 통제한 뒤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의적 과정 참여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61, p<.001$). 3단계에서 성별과 함께 독립변인인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통제하였을 때 청소년의 창의적 과정 참여가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했고($\beta=.37, p<.001$),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eta=.48, p<.001$), 창의적 과정 참여는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과정 참여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표본을 5,000개로 설정하고 신뢰구간 95%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창의적 과정 참여의 간접효과 계수는 .132이며, 하한값 .093, 상한값 .172로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창의적 과정 참여를 매개로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N=406)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R ²
1단계 창의적 인성	성별	-.06	.04	-.06	-1.61	.51***
	창의적 자기효능감	.41	.02	.71	20.09***	
2단계 창의적 과정 참여	성별	-.10	.05	-.08	-2.09	.39***
	창의적 자기효능감	.41	.03	.61	15.52***	
3단계 창의적 인성	성별	-.03	.03	-.03	-.81	.59***
	창의적 자기효능감	.28	.28	.48	11.88***	
	창의적 과정 참여	.32	.32	.37	9.09***	

매개변수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창의적 과정 참여	.13	.02	.09	.17

*** $p<.001$.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 =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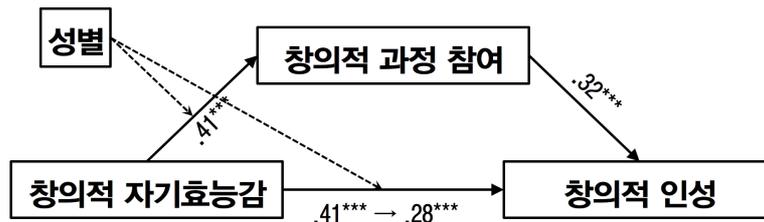


그림 2.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창의적 과정 참여를 매개로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및 창의적 과정 참여와 창의적 인성의 일반적 경향과 각각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창의적 과정 참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과정 참여 및 창의적 인성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모두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김혜숙, 2011; 이미나, 최화선, 최인수, 2012; 최민지, 2020; Begheto, 2006; Karwowski, 2011). 기존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 을 대상으로 창의적 성과의 성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에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본인의 창의적 성향을 더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숙, 2011). 본 연구에서 측정된 창의성 관련 요인들이 창의적 능력에 대한 본인의 신념, 창의적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정도 그리고 창의적 인성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실제 역량 수준이 낮은 것인지 본인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엄격한 것인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대학생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과정 참여 및 창의적 인성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수행된 창의성 발현기제와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본 연구결과들(안동근, 장환영, 백평구, 2020; Jaiswal & Dhar, 2015) 및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의 다양한 측면들간의 관련성에 대한 메타연구

들(정미선, 2021; Haase, Hoff, Hanel & Innes-Ker, 2018)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을 창의적인 사람으로 지각하는 수준과 창의적 행동에 참여하는 행동력의 수준 그리고 창의적인 성향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관련성의 패턴에 차이가 없는 것은 기존 연구(정미선, 2021)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기존 연구들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도 수행되어 학년이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보고하였으나, 이는 발달시기와 같은 연구대상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의적 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창의적 과정 참여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직접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의력을 요구하는 과제하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창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Gist & Mitchell, 1992; Yu & Frenkel, 2013), 특히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들(Carmeili & Schaubroeck, 2007; Farmer, Tierney & Kung-Mcintyre, 2003)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창의적 과제 수행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창의성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창의적 과정 참여를 통한 간접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창의적 과정 참여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온 것은 창의적 결과물을 위해서는 내적으로 동기화되는 과제와 함께 직접적인 창의적 과정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이론(Amabile, 1983)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본인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는 등의 창의적 과정에 더 잘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창의성의 발현으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김민철, 손승연, 2020; Amabile et al., 2018; Deci & Ryan, 1991; Runco, 1986; Spreitzer, 1995).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창의성 발현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타고나거나 환경에 의한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요인으로(Sternberg & Williams, 1996), 창의성 교육의 시작을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은 의미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창의적 과정 참여의 경우, 창의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아도 실질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제에 참여하는 것이 창의성 발현 및 증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를 미루어 보아, 대학생들의 창의성 증진 교육 프로그램에는 실제 창의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수행하게 하는 활동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창의성 수준 향상을 위해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의 중요성과 함께 높은 수준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의적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창의성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과 관련된 세 가지 요인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창의성을 보고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둔다면, 추후 연구에서는 창의적 인성 외에 창의적 산출물 등을 타인 보고형식으로 진행해서 이들 간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창의성의 영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 영역이나 과제에 국한된 연구를 수행한다면, 본 연구에서 밝힌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창의적 과정 참여의 간접효과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다른 이론적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서와 관련된 이론도 접목시킬 수 있는데, 정서 관련 이론에서는 창의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으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창의성을 촉진시키게끔 할 수도 있다고 한다(Li, Yang, Lin & Xu, 2021). 반대로 높은 수준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긍정적 정서를 비활성화시켜 창의성 발현에 대한 노력을 방해하기도 한다고 한다(To, Fisher, Ashkanasy & Rowe, 2012). 이를 미루어보아 추후 연구에서는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실제 창의성간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의 정의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창의적 인성의 발현 및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측면인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행동적 측면인 창의적 과정 참여의 메커니즘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민철, 손승연 (2020). 상사의 창의성 독려가 창의성 및 발언에 미치는 영향: 창의적 과정 참여의 매개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27(2), 47-64. doi:10.14396/jhmr.2020.27.2.47
- 김병만, 김정주, 윤정진 (2016). 예비유아교사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21(1), 403-424. doi:10.20437/KOAECE21-1-17
- 김지일, 허남순, 이지혜 (2011).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의 종단관계 연구: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참가 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학연구**, 42(2), 49-78.
- 김혜숙 (2011). 한국대학생의 창의적 사고력, 창의적 성향, 창의적 산물 및 창의적 효능감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4), 595-611.
- 배진수, 이영만 (2000).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창의력 성격과 창의성과의 관계. **초등교육연구**, 13(2), 43-61.
- 서미옥. (2009). 창의성 강좌가 교육대학원생의 창의적 인성과 창의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열린교육연구**, 17(3), 1-25.
- 안동근, 장환영, 백평구 (2020). 창의적 사고능력, 창의적 자기개념 및 창의적 행동의 발현기제 탐색: 성격특성, 결정지능 및 창의적 효능감의 역할. **창의력교육연구**, 20(2), 51-73. doi:10.36358/JCE.2020.20.2.51
- 오유미, 문혁준 (2018). 예비 영유아교사의 공감능력, 자기효능감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4), 89-110. doi:10.22590/ecee.2018.22.4.89
- 이미나, 이화선, 최인수 (2012). 대학생의 창의성 교육에 대한 전공계열별 인식 비교. **교육과정연구**, 30(3), 353-376.
- 이정규 (2005). 대학생의 창의성과 작업선호도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9(2), 413-432.
- 정미선 (2014). 예비 교사들의 창의력에 대한 신념과창의적 수행. **열린교육연구**, 22(2), 1-18.
- 정미선 (2019). 동기 및 피드백 유형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창의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교양교육연구**, 13(6), 357-379.
- 정미선 (2021). 창의력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메타분석. **상담심리교육복지**, 8, 245-265. doi:10.20496/cpew.2021.8.1.245

- 정진영 (2012).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내재 동기, 창의적 성향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 507-540.
- 최민지 (2020). 예술창작활동에 따른 대학생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차이와 변화 연구: 성별과 소속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18(1), 141-154.
- 하주현 (2000). 창의적 인성 검사 개발. **교육심리연구**, 14(2), 187-210.
- 한준구 (2017). 학습 목표지향성, 창의적 과정 참여, 창의성간 관계에서 리더의 창의성 권장의 조절효과. **인적자원개발연구**, 20(4), 215-245. doi:10.24991/KJHRD.2017.12.20.4.215
- Amabile, T. M. (1983).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A componential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2), 357-376. doi:10.1037/0022-3514.45.2.357
- Amabile, T. M. (1993). Motivational synergy: Toward new conceptualizations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the workplace.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3(3), 185-201. doi:10.1016/1053-4822(93)90012-S
- Amabile, T. M., Collins, M. A., Conti, R., Phillips, E., Picariello, M., Ruscio, J., & Whitney, D. (2018). *Creativity in context: Update to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Routledge. doi:10.4324/9780429501234-10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doi:10.1037/0033-295X.84.2.191
- Basadur, M. (2004). Leading others to think innovatively together: Creative leadership. *The Leadership Quarterly*, 15(1), 103-121. doi:10.1016/j.leaqua.2003.12.007
- Basadur, M., Graen, G. B., & Green, S. G. (1982) Training in creative problem solving: Effects on ideation and problem finding and solving in an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0(1), 41-70. doi:10.1016/0030-5073(82)90233-1
- Baumeister, R. F., & Vohs, K. D. (2003). Self-regulation and the executive function of the self. In M. R. Leary & J. R.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pp. 197-217). New York, London: Guilford Press.

- Beghetto, R. A. (2006). Creative self-efficacy: Correlates in middle and secondary student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8(4), 447-457. doi:10.1207/s15326934crj1804_4
- Carmeli, A., & Schaubroeck, J. (2007). The influence of leaders' and other referents' normative expectations on individual involvement in creative work. *The Leadership Quarterly*, 18(1), 35-48. doi:10.1016/j.leaqua.2006.11.001
- Daly, S. R., Mosyjowski, E. A., & Seifert, C. M. (2019). Teaching creative process across disciplines.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53(1), 5-17. doi: 10.1002/job.158
- Farmer, S. M., Tierney, P., & Kung-Mcintyre, K. (2003). Employee creativity in Taiwan: An application of role identity theor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6(5), 618-630. doi:10.5465/30040653
- George, D., & Mallery, P. (2019). *IBM SPSS statistics 26 step by step: A simple guide and reference*. Routledge.
- Gilson, L. L., & Shalley, C. E. (2004). A little creativity goes a long way: An examination of teams' engagement in creative processes. *Journal of management*, 30(4), 453-470. doi:10.1016/j.jm.2003.07.001
- Gist, M. E., & Mitchell, T. R. (1992). Self-efficacy: A theoretical analysis of its determinants and malle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2), 183-211. doi:10.5465/amr.1992.4279530
- Haase, J., Hoff, E. V., Hanel, P. H., & Innes-Ker, Å. (2018).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creative self-efficacy and different creativity measurement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30(1), 1-16. doi:10.1080/10400419.2018.1411436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doi: 10.1111/jedm.12050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doi:10.1177/0013164403251332

- Jaiswal, N. K., & Dhar, R. L. (2015).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novation climate, creative self-efficacy and employee creativity: A multileve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51*, 30-41. doi:10.1016/j.ijhm.2015.07.002
- Karwowski, M. (2011). It doesn't hurt to ask... But sometimes it hurts to believe: Polish students' creative self-efficacy and its predictors.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5*(2), 154-164. doi:10.1037/a0021427
- Karwowski, M., Lebuda, I., & Wiśniewska, E. (2012). Measurement of creative self-efficacy and creative role-identity. *High Ability Studies*, *22*, 291-231.
- Kaufman, J. C., & Beghetto, R. A. (2009). Beyond big and little: The four c model of creativity.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3*(1), 1-12. doi:10.1037/a0013688
- Li, C. R., Yang, Y., Lin, C. J., & Xu, Y. (2021). Within-person Relationship between Creative Self-efficacy and Individual Creativity: The Mediator of Creative Process Engagement and the Moderator of Regulatory Focus.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55*(1), 63-78. doi:10.1002/jocb.435
- Phelan, S., & Young, A. M. (2003). Understanding creativity in the workplace: An examination of individual styles and training in relation to creative confidence and creative self-leadership.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37*(4), 266-281. doi:10.1002/j.2162-6057.2003.tb00994.x
- Puente-Díaz, R., & Cavazos-Arroyo, J. (2017). The influence of creative mindsets on achievement goals, enjoyment, creative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among business students. *Thinking Skills and Creativity*, *24*, 1-11. doi:10.1016/j.tsc.2017.02.007
- Reiter-Palmon, R. (2017). The role of problem construction in creative production.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51*(4), 323-326. doi:10.1002/jocb.202
- Reiter-Palmon, R., & Illies, J. J. (2004). Leadership and creativity: Understanding leadership from a creative problem-solving perspective. *The Leadership Quarterly*, *15*(1), 55-77. doi:10.1016/j.leaqua.2003.12.005
- Runco, M. A. (1986). Maximal performance on divergent thinking tests by gifted,

- talented, and nongifted children. *Psychology in the Schools*, 23(3), 308-315. doi:10.1002/1520-6807(198607)23:3<308::AID-PITS2310230313>3.0.CO;2-V
- Runco, M. A. (2014). *Creativity: Theories and themes: Research, development, and practice*. Elsevier.
- Shalley, C. E. (1991). Effects of productivity goals, creativity goals, and personal discretion on individual creativ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2), 179-185. doi:10.1037/0021-9010.76.2.179
- Shalley, C. E., & Zhou, J. (2008). Organizational creativity research: A historical overview. *Handbook of organizational creativity*, 331, 3-31.
- Spreitzer, G. M. (1995). Individual Empowerment in the Workplace: Dimensions, Measurement, and Valid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5), 1442-1465. doi:10.5465/256865
- Sternberg, R. J., & Williams, W. M. (1996). *How to develop student creativity*. ASCD.
- Tierney, P., & Farmer, S. M. (2002). Creative self-efficacy: Its potential antecedents and relationship to creative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6), 1137-1148. doi:10.5465/3069429
- Tierney, P., & Farmer, S. M. (2011). Creative self-efficacy development and creative performance over tim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6(2), 277-293. doi: 10.1037/a0020952
- To, M. L., Fisher, C. D., Ashkanasy, N. M., & Rowe, P. A. (2012). Within-person relationships between mood and creativ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7(3), 599-612. doi:10.1037/a0026097
- Utman, C. H. (1997). Performance effects of motivational state: A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2), 170-182.
- Vroom, V. H. (1964), *Work and motivation*. NY: Wiley.
- Yu, C., & Frenkel, S. J. (2013). Explaining task performance and creativity from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theory: Which mechanisms are more importan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4(8), 1165-1181. doi: 10.1002/job.1844

Zhang, X., & Bartol, K. M. (2010). Linking empowering leadership and employee creativity: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intrinsic motivation, and creative process eng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3(1), 107-128. doi:10.5465/amj.2010.48037118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creative process engag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e self-efficacy and creative personality

Kim, Kyung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general tendencies and relationships which exist within and between creative self-efficacy, creative process engagement and creative personality, and to analyz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creative process engagement between creative self-efficacy and creative personality.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406 college students in Korea.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creative self-efficacy, creative process engagement and creative personality. Males showed higher scores than women in all of the variables. Second, creative self-efficacy, creative process engagement and creative personality had significant and positive relationship to each other. Third, creative self-efficacy had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the creative personality.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bootstrapping was analyzed to identify the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s of the creative process engagement. This study provides a number of important implications for our understanding of the basic sources to better develop creativity enhancing programs for college students.

Key Words: creative self-efficacy, creative engagement process, creative personality, college students' creativity development mechanism

투고일: 2021. 6. 7, 심사일: 2021. 7. 23, 심사완료일: 2021. 8. 10

* Research professor, BK21 R & E Center for Sustainable Living System, Korea University